

# 경복궁 원유에 대하여 (景福宮 苑圃에 對하여)

鄭 在 鏞

(海外公報館支援課長)

## 1. 序

이태조(李太祖)가 1392년(年) 개성 수창궁(壽昌宮)에서 왕위(王位)에 올라 고려(高麗)를 이어 조선왕조(朝鮮王朝)를 건국(建國)하고 1394년(年) 한양(漢陽)으로 도읍(都邑)을 옮겨 그 이듬해에 창건(創建)한 조선(朝鮮)의 정궁(正宮)이 경복궁(景福宮)이다.

원래 이곳은 고려 숙종(肅宗)때(1096~1105)에 조영(造營)하였던 남경 이궁(南京 離宮)의 터인데 고려(高麗)의 이궁지(離宮地)가 협소하여 북악(北岳)에서 조금 넓은 남(南)으로 옮겨 경복궁(景福宮)을 조영(造營)하였던 것이다. 경복궁(景福宮)의 터는 고려 때부터 풍수설(風水說)에 따라 「明堂之地」로 지목되어 왔다. 북(北)에는 북악(北岳)을 주산(主山)으로 하고 좌(左)에 청룡(靑龍)의 락산(駱山) 우(右)에 백호(白虎)의 인왕산(仁旺山)과 남(南)에 안산(案山)인 목멱산(木覓山)을 둔 지세(地勢)에 있다.

경복궁(景福宮)의 궁궐이 완성(完成)된 것은 1395년(年)이다. 그 후 여러 시대를 내려 오면서 많은 수축(修築)이 있었고 1592년(年) 4월(月) 30일(日) 임진왜란(壬辰倭亂)때 난민(亂民)의 방화(放火)로 폐허(廢墟)가 되어 273년간(年間)을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1865년(年) 고종대(高宗代)에 와서 재건(再建)되기 시작하였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복궁(景福宮)은 고종대(高宗代)에 재건(再建)된 궁(宮)이다. 그러나 경복궁(景福宮)의 재건(再建)에 있어 본래 궁궐의 배치나 규모는 옛 구기(舊基)를 따랐고 건축(建築)의 기법 등(技法等)은 조선말기(朝鮮末期)의 시대성(時代性)을 가미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왕조 정궁(正宮)의 원유(苑圃)에 대하여 그 전통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제 이 글에서 밝혀보고자 하는 것은 조선 정궁(正宮)의 조경공간(造景空間) 본래의 모습과 지금까지 비교적 원형(原形)을 간직하고 있는 조원 유적(造園 遺蹟)의 보존(保存)을 기(期)하고 일제시대(日帝時代)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형된 궁원(宮苑)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펴 소견(小見)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景福宮(경복궁) 造景空間(조경공간)의 配置(배치) 및 植樹(식수)

경복궁(景福宮)은 남북 장축(南北 長軸) 378m 동서 중앙축(東西 中央軸) 520m로 북쪽이 남쪽보다 약간 넓어 궁성 내 전체(宮城內 全體)의 면적(面積)92,332평(坪)이 장방형

(長方形) 부채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 중앙(空間 中央)에 중국궁(中國宮)의 배치(配置)와 같이 남북일직선상(南北一直線上)에 광화문(光化門) 홍례문(弘禮門) 영제교(永濟橋) 근정문(勤政門) 근정전(勤政殿) 사정전(思政殿) 강령전(康寧殿) 교태전(交泰殿) 흥복전(興福殿) 집경당(緝敬堂) 향원정(香遠亭)

건청궁(乾淸宮)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교태전(交泰殿)은 경복궁(景福宮)의 남북(南北)과 동서(東西)의 꼭 중앙(中央)에 배치(配置)되었던 왕(王)과 왕비(王妃)가 거처하던 침전(寢殿)이다. 중요건물(建物)로는 교태전(交泰殿)에 인접하여 서(西)에 경회루(慶會樓) 동북(東北)에 자경전(慈慶殿)이 있고 궁성내 서북(宮城內 西北) 모퉁이에 태원전(泰元殿)이 있으며 그 앞에 문경전(文慶殿)이 있고 동북(東北) 모퉁이에 선원전(璿源殿)이 있었으며 그 남(南)으로 건축문(建春門)에 이러한 건물이 가득히 배치(配置)되었다.

경복궁(景福宮)의 이러한 배치(配置)에서 조원 공간(造園 空間)을 이루고 있는 것은 광화문(光化門)을 들어서면 동(東)과 서(西)에 방지(方池)가 있었고 이 공간(空間)에는 내담을 남북(南北)으로 설치(設置)한 것 외에 홍례문(弘禮門)앞까지 큰 느티나무 회화나무 버드나무등의 교목(喬木)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홍례문(弘禮門)은 근정전 회랑(勤政殿 廻廊)앞에 연(連)하여 남(南)으로 또 하나의 회랑(廻廊)이 있었는데 그 회랑 내(廻廊內)에 들어오는 정문(正門)이다. 이 회랑내(廻廊內)에는 동서(東西)로 직선(直線)의 석축(石築) 개울이 흐르고 이 개울에 영제교(永濟橋)가 설치(設置)되어 있었으며 개울가에는 버들 느티 회화나무 등 수목(樹木)이 울창한 원유(苑圃)를 형성하고 있었다.

궁 동문(宮 東門)인 건축문 내(建築門 內)와 궁 서문(宮 西門)인 영추문 내(迎秋門 內) 및 궁 북문(宮 北門)인 신무문 내(神武門 內)는 모두 큰 교목(喬木)인 느티나무, 회화나무, 버드나무, 느릅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참배나무, 말채나무, 서나무 굴참나무 등속이 자연스럽게 원림(苑林)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경회루 방지(慶會樓 方池) 주위의 서편(西便)과 북편(北便) 및 향원전 연지(香遠殿 蓮池) 주위와 건청궁(乾淸宮) 동편(東便)의 룩산(鹿山)과 이에 연하여 있는 선원전 후원(璿源殿 後苑)인 동북(東北) 산록(山麓)과 궁서(宮西) 북편(北便) 모퉁이의 태원전 후원(泰元殿 後苑), 태원전(泰元殿) 앞의 회안전(會安殿)과 문경전(文慶殿) 동편(東便) 산록(山麓)등에는 거목(巨木)으로 형성되는 원림(苑林)이 유현한 자연(自然)의 공간(空間)을 조성(造成)하고 있었다.

그 외(外)에 교태전 후원(交泰殿 後苑)인 아미산(峨帽山)과 신무문 내(神武門 內) 집옥재(集玉齋)에 붙어 있는 팔우정(八隅亭) 앞과 자경전 후원(慈慶殿 後苑) 창경궁 후원(昌慶宮 後苑) 아미산 동편(峨帽山 東便) 자폐당 후원(紫薇堂 後苑)등은 화목(花木)이 주(主)가 되는 화려한 조원 공간(造苑 空間)을 형성했던 곳이다. 이러한 조원공간(造苑 空間)의 건물(建物)을 둘러싼 담도 전(塼)이나 화장(花牆)으로 축조(築造)하고 각종의 문양전이나 화전(花塼)을 구워서 그 치장이 화려하였으며 담에 설치(設置)된 작은 협문들은 운치있고 조화적(調和的)인 흥예문이 설치(設置)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후원(後苑)의 굴뚝도 모두 화담이나 화목(花木)과 어울리게 아름다운 치장을 했던 것이다. 또 후원(後苑)에 놓이는 괴석분(怪石盆)이나 석지(石池)가 배치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 건물(建物)의 앞마당이나 담장내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았던 것이다. 담장에 있어서는 외곽(外廓)의 궁성(宮城)담은 사고석으로 쌓고 건물(建物)과 건물사이의 담은 온화하고 부드럽게 전(塼)담을 축조하였으며 격식에 따라 화담을 설치(設

置)하기도 했던 것이다. 집의 단을 사교석으로 축조하면 강한 화강암으로 인하여 부조화적(不調和的)이므로 기초부분은 화강암을 사용하더라도 상단부분은 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경복궁 배치도(景福宮 配置圖): 본도면(本圖面)은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제십권(第十卷)에서 전재(轉載)한 것인바 1920년경(年頃)에 교태전(交泰殿)등을 창덕궁(昌德宮)으로 이건(移建)한 후에 제작된 것임.

당시까지 교태전후원(交泰殿後苑)에 아름다운 전담이 남아 있었음.)

이제 경복궁 내(景福宮)의 식수(植樹)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74년(年)에 경복궁 사무소(景福宮)에서 조사(調査)한 경복궁 내(景福宮內)의 수목 분류(樹木 分類) 내역과 그 분포 수량(數量)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一 般 樹 木		庭 園 樹		花 木 類	
樹 種	株 數	樹 種	株 數	樹 種	株 數
소 나 무	108	회 양 목	461	무 궁 화	151
전 나 무	271	향 나 무	245	자 두 나 무	2
쉬 나 무	52	후 박 나 무	14	개 나 리	1,115
은 행 나 무	37	옥 향 나 무	12	대 명 홍	236
말 채 나 무	75	측 백 나 무	136	옥 매 화	6
굴 참 나 무	53	주 목	54	라 이 락	134
다 림 나 무	3	홍 단 풍	10	살 구 나 무	59
대 추 나 무	22	가 이 쓰 가	89	참 배 나 무	9
버 드 나 무	51	청 단 풍	151	벗 나 무	105
말 오 줌 나 무	2	눈 향 나 무	12	사 과 나 무	1
빵 꾸 스 송	19	사 철 나 무	96	매 화	156
회 화 나 무	25	팔 배 나 무	1	수 양 버 들	103
주 염 나 무	6	다 행 송	1	철 죽	467
산 사 나 무	4	벽 오 동	3	병 꽃 나 무	8
황 견 피 나 무	1	실 편 백	4	장미(모포장포함)	503
가 래 나 무	1	은 단 풍	7	모 란	75
느 림 나 무	8	향 측 백	1	홍 도	64
개 오 동 나 무	10	비 자 나 무	2	해 당 화	25
니 끼 다 송	17	편 백	98	진 달 래	58
갯 나 무	223			산 벗 나 무	143

一 般 樹 木		庭 園 樹		花 木 類	
樹 種	株 數	樹 種	株 數	樹 種	株 數
뽕 나 무	11			앵 두 나 무	16
박 달 나 무	1			복 승 아 나 무	1
프 라 타 나 스	17			조 팜 나 무	6
아 까 시 아	55			백 칠 죽	23
느 티 나 무	59			목 백 일 홍	4
물 프 레 나 무	2			동 백	6
귀 룡 나 무	11			산 수 유	30
보 리 수	3			등 나 무	51
오 리 나 무	7			불 도 화	1
감 나 무	5			개 동 백 나 무	2
가 문 비 나 무	7			마 가 목	9
웃 나 무	4				
밤 나 무	32				
팽 나 무	3				
훗 잎 나 무	3				
모 과 나 무	1				
편 백 나 무	2				
네 군 도 단 풍	4				
화살훗잎나무	4				
서 나 무	18				
미 루 나 무	2				
물 참 나 무	4				
싸 리 나 무	2				
가 죽 나 무	27				
엄 나 무	4				
오 동 나 무	2				
층 층 나 무	2				
참 나 무	53				
은 수 은 사 시	3				
피 나 무	1				

경복궁(景福宮)의 재건(再建)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1888년(年)(고종(高宗)25년(年))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90년 전(前)에 있었던 경복궁의 수종(樹種)은 어떤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수령(樹齡)이 90년(年)이 넘거나 이에 가까운 나무는 느티나무, 서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굴참나무, 엄나무, 밤나무, 뽕나무, 팽나무, 말채나무, 참배나무, 철쭉, 매화, 목백일홍, 산사나무, 조팝나무, 소나무, 감나무, 피나무, 모과나무, 가죽나무, 주염나무, 가문비나무, 단풍나무, 쉬나무 등이다.

우리는 여기서 제왕(帝王)의 궁원(宮苑)에 심는 나무에 대하여 역사적 유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느티나무와 회화나무는 한자(漢字)로 쓰면 모두 괴(槐)가 되는데 괴(槐)는 주대(周代)부터 궁내(宮內)에 심는 나무의 대표적 수종(樹種)이다. 「周禮」에 보면 주대(周代)에는 궁(宮)의 고문(阜門)(예기(禮記)에 궁성(宮城)의 가장 바깥 누문(樓門)을 말함)과 응문(應門)(시경(詩經)에 궁중(宮中)의 정문(正門)이라 함) 사이에 괴수(槐樹)를 심어서 이 괴수(槐樹) 밑에 삼공(三公)이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 오는 이를 맞이하면 제도에서 비롯되어 제왕(帝王)의 궁전(宮殿)을 괴신(槐宸)이라고도 하며 삼공(三公)의 자

리를 괴위(槐位)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경복궁(景福宮)의 광화문(光化門)은 고문(梟門)이며 근정문(勤政門)은 응문(應門)인데 이 사이에 느티나무와 회화나무를 심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양(東洋)의 궁원 조성(宮苑 造成)의 제도(制度)이다.

단풍나무는 한(漢)나라 시대(時代)에 궁내(宮內)에 많이 심어 궁전(宮殿)을 풍신(楓宸)이란 별칭이 붙게 되었는데 이후부터 궁내에 많은 풍(楓)을 심었던 것이다.

버들을 제왕(帝王)의 원유(苑囿)에 심는 것은 삼국사기 백제무왕조(三國史記 百濟武王 朝)에 보이며 무왕(武王)은 부여 궁남(宮南)에 원지(苑池)를 파고 못가에 버들을 심었던 것이다. 이는 우리 역사상 제왕(帝王)에 원유에 최초로 심은 구체적인 나무의 이름이 나오는 기록이다. 이 버들은 고려청자의 정병, 조선백자 등에 아름다운 무늬로 들어가 있고 많은 시(詩)와 노래와 그림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나무다.

뽕나무(柞)는 활을 만드는 목재로서 또는 누에를 기르는 나무로서 중요(重要)하였고 이 나무는 가지가 길고 단단하여 가마귀가 튕겨서 잘 앓지 못한다는 기록도 있는바 이 나무에서 염료를 채취하여 천자(天子)나 제왕(帝王)의 옷에 황적색(黃赤色) 물감을 들여 입었던 것으로 귀하게 여기던 나무다.

특히 태종(太宗)은 궁내(宮內)에 뽕나무를 많이 심어 궁녀(宮女)들이 양잠을 하도록 명(命)하였던 것인바 경복궁(景福宮)이나 창덕궁 내(昌德宮內)에 오래된 뽕나무가 많은 것은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은행나무는 공자(孔子)와 관계되는 나무다.

행단(杏壇)이라 하여 공자(孔子)가 그 제자(弟子)를 가르치던 유지(遺址)에 「행단」비(杏壇碑)를 세웠던 것인데 이곳에 행림(杏林)이 조성(造成)되었다. 그래서 서원(書院)이나 향교(鄉校)에는 꼭 행목(杏木)을 심는 것인데 궁(宮)에도 행목(杏木)이 심어지게 되었다.

이화(梨花)는 동양고래(東洋古來)로 조성(造成)되는 기록이 보이고 특히 조선왕조(朝鮮 王朝)의 상징적인 꽃이 이화(梨花)였던 것이기 때문에 경복궁(景福宮)과 창덕궁(昌德宮)의 중요(重要)한 조경(造景) 공간에 이화(梨花)(참배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리고 제왕(帝王)의 원유(苑囿)를 대별(大別)하여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궁성 내(宮城內)에 조성하는 것과 궁성 외(宮城外)에 조성(造成)하는 것이 그것이다.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궁성 외 조성(造成)한 원유(苑囿)는 남대문(南大門)과 동대문(東大門) 밖에 큰 연지(蓮池)가 있었고 서대문 내(西大門內)에는 원림(苑林)이 있었으며 궁성 내(宮城內)것은 경회루 방지(慶會樓 方池)나 향원정 연지(香遠亭 蓮池) 또는 창덕궁 후원(昌德宮 後園)이다.

궁성 외(宮城外)의 것은 자연(自然)에 약간의 인공(人工)을 가하여 이용시설(利用施設)을 하는 것이며 궁내(宮內)것은 인공적(人工的)인 궁성(宮城)을 자연(自然)스럽게 조화(調和)시키는 주안점(主案點)에 있다. 그래서 경복궁 내(景福宮內)의 수종중(樹種中)에 심산유곡에 자라는 소나무, 서나무, 참나무, 음나무, 팽나무, 피나무, 말채나무, 쉬나무등 자연수(自然樹)가 들어와서 인공적(人工的)인 궁궐을 자연(自然)스럽게 만든 것이다. 교태전 후원(交泰殿 後苑)인 아미산(峨帽山)이나 전(殿)의 후원(後苑)같은 곳에는 화목(花木)이 들어가는데 이런 곳에는 강희안(姜希顔)(1419~1463)의 화목구등품(花木九等品)에 보이는 수종(樹種)이나 중국 이덕유(中國 李德裕)의 평천장(平泉莊)에 보이는 화목(花木)등과 또 동양고래(東洋古來)로 궁원(宮苑)에 심는 향초(香草)의 난종류(蘭種類)나 약초(藥草)등과 무릉도원(武陵桃源)의 고사에 보이는 도화등(桃花等)이 배치(配置)되기도 한다. 그래서 매(梅), 자미(紫薇), 목단(牡丹), 도(桃), 난(蘭), 행(杏)(살구), 앵두,

자약, 과목(果木), 죽(竹), 국(菊), 이등(梨等)이 배치 되었다.

원유 조성(造成)에 있어서 삼국시대(三國時代)나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궁원(宮苑)에 자연괴석(自然塊石)을 치석(置石)할 때는 입치(立置), 평치(平置), 군치(群置), 첩치(疊置)의 방법으로 자연괴석(自然塊石) 자체만을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왕조궁원(朝鮮王朝宮苑)에 괴석(塊石)은 팔각(八角), 원(圓), 육각(六角), 사각 등(四角等) 다양한 형태에 방법(方法)도 곡선(曲線)을 피하고 대담한 장대석의 직석지안(直線池岸)을 조성(造成)하여 방형(方形)이 유행한 것도 특이(特異)한 것이다.

현재(現在) 경복궁(景福宮) 궁성(宮城)은 광화문(光化門)에서 근정전(勤政殿)에 이르는 궁전원(宮前苑)의 공간에다 일제(日帝)에 총독부 청사(현 중앙청(現 中央廳))를 건립(建立)하여 조선정궁(朝鮮正宮)의 장엄하고 유려한 전원조원(前苑造苑)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말았다.

### 3. 原形(원형)이 남아 있는 苑圍(원유)의 遺蹟(유적)

경복궁내 조원공간(景福宮內 造苑空間)속에서 옛 모습을 비교적 잃지 않고 있는 곳은 경회루(慶會樓)와 그 방지(方池), 향원정(香遠亭)과 그 연지(蓮池), 자경전 화장(慈慶殿 花牆), 교태전 후원(交泰殿 後苑)인 아미산(峨嵋山) 정도다.

경복궁(景福宮)은 조선총독부 청사(朝鮮總督府 廳舍)를 건립(建立)하면서 가장 많이 파괴되었고 1917년(年) 창덕궁(昌德宮)의 화재로 경복궁(景福宮)의 내전(內殿)들을 창덕궁(昌德宮)으로 이건(移建)하면서 정궁(正宮)의 중심건물(中心建物)이 없어졌다.

그리고 1915년(年) 일제 시정오주년 물산공진회(日帝 施政五週年 物産共進會)를 개최하면서 건립(建立)한 진열관(陳列館)(후에 조선총독부 박물관(朝鮮總督府 博物館)이 되고 현 학예술원청사(現 學藝術院廳舍))으로 인하여 건춘문내(建春門內)의 조원공간(造苑空間)이 모두 파괴되었다.

1940년(年)에는 경복궁(景福宮) 선원전 앞에 박물관(博物館)을 건립(建立)하기 시작하여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고 건청궁지(建淸宮池)에 진열관(陳列館)(현 민속박물관건물(現 民俗博物館建物))을 건립(建立)하여 잠식되었다.

그리고 흥복전지(興福殿址)와 그 후원(後苑) 자리에 어색한 조원(造苑)을 하여 원형(原形)을 잃어버리고 곳곳에 일본식(日本式) 정원수가 심어졌다.

일제시(日帝時) 경복궁(景福宮)에다 약용식물(藥用植物)의 시험장을 두어 한약재(漢藥材)의 수종들이 많이 들어 왔다. 6·25을 겪으면서 많은 진화를 입었고 그후 산업박람회(産業博覽會)를 경복궁에서 개최한 후 그 터에 조경(造景)을 하면서 전문가(專門家)의 연구(研究)없이 조선왕조 원유(朝鮮王朝 苑圍)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공원(公園)의 개념으로 일본식(日本式) 정원수가 가득히 심어지게 되었다.

건청궁(乾淸宮)옆 룩산(鹿山)의 동산(東山)은 그런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근년에 조경을 하면서 이부 자연(自然)스러운 경관이 인공적(人工的)으로 바뀌어 버렸다. 경복궁 서문 영추문내(迎秋門內) 경회루방지(慶會樓 方池) 서편(西便)이 울창한 수림으로 덮여 있던 공간인데 모두 파괴되고 등가대를 설치하여 등나무를 올리고 라이락 등을 심어 그 원형을 변형시켜 버렸다. 우리 나라 조원(造苑)공간에 등가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었고 이는 공원을 조성하는 개념으로 만든 것인데 없는 것이다. 제왕(帝王)의 궁궐 원유(苑圍)가 민중(民衆)의 휴식공간이 되는 공원개념이 적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이 공원의 개념은 중요한 일이지만 역사적 조원(歷史的 造苑)의 유적(遺蹟)으로 옛대로 관리하는 공간에는 공원(公園)개념으로 조경(造景)을 적용하면 원형을 모두 파괴하고 변형하게 된다. 다만 오늘날 새로 조성하는 기념공간에는 공원의 기능을 가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안점(主案點)과 안목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조경에 있어 큰 착오를 범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복궁 내(景福宮)에 남아 있는 조원공간(造苑空間)의 원형(原形)을 찾아보고자 한다.

#### 가. 경회루(慶會樓)와 방지(方池)

경회루(慶會樓)는 연회(宴會)를 베풀고 방지(方池)에는 선유(船遊)도 즐기던 곳이다. 1395년(年)(태조(太祖)4년(年))에 이곳이 습지여서 소지(小池)가 조성(造成)되었던 것인데 1412년(年)(태종(太宗)12년(年)) 태종(太宗)의 명(命)에 의하여 역사제조 박자청(役事提調 朴子靑)이 큰 규모로 넓혀서 조성하고 이때부터 경회루(慶會樓)라 했던 것이다. 방지(方池)는 남북(南北)이 113m 동서(東西)가 128m인데 지중(池中)에 두 개의 장방형소도(長方形小島)가 있고 동(東)쪽 지안(池岸)에서 세계의 석교(石橋)로 연결된 방형도상(方形島上)에 정면7간(間)(112.5척(尺)) 측면 오간(측면 五間)(93.3척(尺))의 웅대(雄大)한 누(樓)를 건립하였다. 이 누(樓)는 48개(個)의 석주(石柱)가 높게 받치고 있는데 외주(外柱)는 방형(方形)이고 내주(內柱)는 원주(圓柱)로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져 알맞게 깎아서 경쾌한 멋을 준다. 현재 건물(現在 建物)은 1867년(年)에 세운 것이다. 세석교의 난간은 하엽동자(荷葉童子)에 회란석(廻欄石)을 설치(設置)하였는데 이는 경회루(慶會樓)가 있는 섬 전체의 주위도 둘러다.

이 경회루(慶會樓)는 방지의 면적과 적절히 조화되어 대단히 큰 누(樓)인데 알맞아 보이고 못속에 그림자를 드리운 모습은 장엄하고 시원한 경관을 구성한다. 방지(方池)의 지안(池岸)은 측면폭(側面幅)이 40cm쯤 되는 장대석으로 축조하였는데 정연성과 장엄미를 가진다. 지안(池岸)이 수원(水源)에 노출되는 것은 장대석 2단(段)으로서 한변이 100m가 넘는 길이므로 안정감을 주고 높지 않게 보인다. 수원은 못바닥에서 냉천(冷泉)이 솟고 있어 맑은 물을 유지할 수가 있고 지중(池中)에 연(蓮)을 심고 잉어같은 고기를 길렀으며 경회루 서편 도안(島岸)에서 배를 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방지(方池)의 주위 경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회루의 방지 동(東)편에는 바로 강녕전(康寧殿)과 교태전(交泰殿)의 전(塼)담이 붙어 있어 식수공간(植樹空間)이 아니었으며 남(南)으로는 수정전 검서청(修政殿檢書廳)(현 푸라타나스가 선 위치)의 건물과 회랑(廻廊)이 있어 못가에 버들 느티가 약간 배치되었다. 수목(樹木)은 북(北)쪽 담 밑과 담 너머에 울창하게 배식되었었고 서(西)쪽에는 영추문내원(迎秋門內苑)이 되는바 이곳에 신무문 쪽에서 내려오는 개울하나가 지나가며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의 사진(寫眞)을 보면 경회루방지(慶會樓 方池)의 서편(西便)에는 노송(老松)이 우거지고 느티나무, 회화나무, 버드나무가 가득이 수림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후에 이곳에 등가대를 설치하고 등나무를 심고 라이락 꽃나무를 심어서 자연(自然)스러운 아름다운 공간을 인공적 공원(公園)의 휴게공간처럼 만들어 버렸다. 앞에서 말했지만 한국조경의 역사적 공간에 등가대 따위를 설치한 일은 옛날에 없었던 것이며 사적(史蹟)의 원형(原形)을 보존하는 조경공간에는 조화되지 않는 것이다. 이 방지(方池) 주위는 장대한 화강암의 강한 선과 광활한 수면(水面) 및 높고 장려한 경회루의 누각과 더불어 거대한 느티나무나 회화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서나무, 팽나무, 말채나무 등속이 북(北)과 서(西)에 울창하게 숲을 이루어야 경관

이 어울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작고 화려한 화목수(花木樹)를 심어 가지고는 조화된 경관을 조성 할 수가 없는 공간이다. 아직도 방지북(方池北)과 서에는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몇 그루 고목(古木)이 서있다. 경희루 방지 북안(方池 北岸)의 하향 정(荷香 亭)이란 정자는 이승만대통령(李承晩大統領)이 여가를 즐기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나. 향원정(香遠亭)과 그 연지(蓮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조(世祖) 2년(年)(1456)조(條)에 보면 경복궁 후원에 취로청(翠露亭)을 짓고 차지 중련(鑿池 種蓮)의 기록이 보이는바 이때 연지(蓮池)가 조성(造成)된 것으로 보이며 고종(高宗) 10년(年)(1876) 건청궁(乾淸宮)을 건립(建立)하면서 지금의 연지(蓮池)를 다시 축조(築造)하고 취향루(醉香樓)를 이건(移建)하여 향원정(香遠亭)이라 하였다.

향원(香遠)이란 연지(蓮池)의 별칭(別稱)으로 주렴계(周濂溪)의 애련설(愛蓮說)의 「香遠益淸」에서 따온 것이다. 이 지면(池面)은 1393평(坪) 정도로 모를 죽인 방형(方形)의 못인데 지형(地形)따라 적절히 만든 것이다. 지중(池中)에는 98평(坪) 정도의 원형도(圓形島)를 만들고 도중(島池)에 단(壇)을 조성(造成)하여 정육각(正六角)(일간(一間) 7.49척(尺))의 향원정(香遠亭)을 건립(建立)하였다.

이 향원정(香遠亭)에 들어가는 다리는 북(北)쪽 건청궁(乾淸宮)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다리 이름이 취향교(醉香橋)다.

현재 취향교(現在 醉香橋)는 1953년(年)에 남쪽으로 이설(移設)되었다. 이 원유(苑囿)는 건청궁(乾淸宮)에 거처하던 고종황제(高宗皇帝)와 민비(閔妃)의 소요처(逍遙處)이기도 하였다. 이 못의 수원(水源)은 지안(池岸) 북서(北西)쪽 모퉁이에서 냉천(冷泉)이 힘차게 솟아 오르고 있다. 여기에 정석(井石)을 놓고 「冽上眞源」이란 명문(銘文)이 석각(石刻)되어 있다. 이 열정(冽井)에서 연지(蓮池)에 유입(流入)시키는 수입시설(水入施設)이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다.

너비 73cm 길이 105cm 두께 25cm쯤 되는 판석(板石)에 깊이 4cm 너비 18cm 길이 30cm의 수구(水求)를 파고 지름 41cm 깊이 15cm의 둥근 홈을 파서 이 홈 한쪽으로 지름 9.7cm의 구멍을 내어 물이 직각으로 30cm쯤 꺾어 흘렀다가 130cm 정도의 직각 수구(水求)로 다시 연결되어 지중(池中)에 유입(流入)되게 되어 있다.

지중(池中)으로 유입(流入)되는 마지막 수구(水求)는 너비 44cm길이 86cm의 석재(石材)에다 수구(水求) 넓이 18cm 깊이 7cm의 수로(水路)를 판 것이다. 이 수구(水求)의 시설은 열정(冽井)물이 넘치어 지중(池中)을 행해서 빠르게 흐르도록 만들었으며 지름 41cm의 둥근 석구(石溝)속에서 물이 세차게 한바퀴 빙 돌게 만들고 석구(石溝)바닥의 구멍속으로 물이 잠겨 빠지게 하여 직각으로 물줄기를 꺾고 30cm쯤 별석(別石)의 판석(板石) 밑으로 보이지 않게 흘렀다가 다시 직각으로(보이지 않으므로 추정) 꺾어 지중(池中)에 유입(流入)되게 만들었다.

이 유입시설(流入施設)의 주위는 다듬은 판석(板石)으로 사람이 접근하여 손도 씻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곳은 물소리와 찬물의 냉기와 물줄기의 세찬 움직임과 사람의 접근을 용의 주도하게 조화(調和)시킨 특수한 재주를 보여준다.

못에 물을 넣는 조류로는 현폭 자일 잠류(懸瀑 自溢 潛流)가 있을 때에 만들 수 있고 잠류(潛流)는 지소(池沼) 옆에서 수원(水源)이 있을 때에 만드는 것인데 이 향원정 연지(蓮池)의 수입(水入)은 자일(自溢)로서 현폭(懸瀑)의 물소리를 내면서 잠류(潛流)의 잔잔한 효과를 동시(同時)에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20년(年)경에 찍은 조선 고적도



보의 사진을 보면 향원정(香遠亭)이 있는 섬에는 낮은 화목류(花木類)만이 심어져 있고 수목(樹木)은 없다. 즉 철쭉류나 매화란(梅花蘭)종류가 심어졌던 것이며 지금의 개나리, 벚나무 등속은 근년에 심어진 것이며 이 정자(亭子)와의 조화(造化)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안(池岸)가에는 느티나무, 회화나무, 소나무, 산사나무, 서나무, 버드나무, 느릅나무, 단풍나무 등속이 울창하게 서있었던 것이다. 또한 향원정 연지(蓮池) 서(西)편에는 북악(北岳)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흘러보내던 석축(石築)의 큰 배수로가 있는데 이 배수로 주위에도 방지(方池)주위의 수림이 연결되어서 신무문내(神武門內)의 원림(苑林)를 형성하고 있었다. 지금도 이곳에는 이러한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원림(苑林)이 유지되고 있다. 근간에 자연(自然)스러운 아름다움을 해치는 부조화(不調和)의 인공적(人工的)인 조경수(造景樹)와 지안(池岸)에 단(段)을 넓히거나 높혀서 휴계의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이 연지(蓮池) 주위의 자연스러운 나무를 보호하는 곳에 제(第)1의 주안(主案)점을 두어야 한다.

#### 다. 자경전화장(慈慶殿花牆)

자경전(慈慶殿)은 원래(原來) 자미당(紫微堂)의 터로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소실(燒失)되었던 것을 고종(高宗)2년(年)(1865)에 재건(再建)하고 그 후 두차례의 화재를 입어 1888(고종 25년(年))에 복구(復舊)한 집이다. 이곳에는 고종(高宗)의 양모(養母)인 신정익(神貞翼)·황후(皇后)(헌종(憲宗)의 생모(生母)) 조대비(趙大妃)가 있던 곳이다.

건물은 정면십간(正面十間) 측면사간(側面 四間)의 단층(單層) 팔작의 간결한 익공(翼工) 집으로 중국(中國) 궁전(宮殿) 건물(建物)과는 다른 한국(韓國)의 단아한 궁전건물(宮殿建物)이다. 이 집의 담은 모두 화장(花牆)으로 축조(築造)하였는데 후정(後庭)의 십장생(十長生)이 장식된 화장연돌(花牆煙堦)은 조선궁전(朝鮮宮殿) 화장(花牆)의 제일품(第一品)이다. 이 화장(花牆)은 자경전 연돌(煙堦)을 곁하고 있는 것인데 원래이 담의 지붕 위에는 연가(煙家)가 나란히 설치(設置)되어 있었던 것이다.

1920년경(年頃)에 찍은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의 사진(寫眞)에는 이 연가(煙家)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후 모두 없어지고 담 지붕처럼 변형되고 말았다.

궁(宮)의 외곽(外廓)담은 사백석(四魄石)으로 쌓았으나 전(殿)의 담은 모두 전장(殿牆)이나 화장(花牆)으로 온화(溫和)한 조화(調和)를 주고 있는 것이 특색(特色)이다.

이 십장생(十長生) 연돌(煙堦)은 너비가 381cm 높이가 236cm에 두께가 65cm 의 구조물을 담에다 덧 붙여서 만들었다. 상단(上段)에는 중앙(中央)에 용문전(龍紋甄)(44cm×29cm)을 박고 좌(左), 우(右)에 학문전(鶴紋甄)(좌(左)24.5cm×34.5cm, 우(右)25.5cm×35cm)을 박았다. 그리고 그 아래 중앙벽(中央壁)에 가로 303cm 세로 88cm 의 공간(空間)에 일(日), 산(山), 운(雲), 석(石), 송(松), 귀(龜), 녹(鹿), 학(鶴), 해(海), 포도, 연(蓮), 죽(竹), 백조(白鳥), 불로초(不老草)를 조형전(造形甄)으로 배치(配置)하였으며 그 밑에는 해치(獬豸) 두 마리를 전(甄)으로 만들어 배치하였다. 그리고 양측면 벽에는 박쥐 문전(紋甄)과 당초문이 들어 있다. 용전(龍甄)은 왕(王)의 흉배문(胸背文)과 비슷하고 좌우의 학전(鶴甄)도 문관(文官)의 흉배(胸背)와 같은 것이며 이는 군(君), 신(臣)의 상징을 한 것 같으며 해치(獬豸)는 해태와 같이 재앙을 막는 것이며 박쥐는 자손이 번성하고 부귀(富貴)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서조(瑞鳥)로 도자기, 목기, 그림, 자수 등에도 많이 그려졌다.

자경전(慈慶殿) 서편(西便)담 내벽(內壁)에는 주황색(朱黃色) 전(甄)으로 만수(萬壽)의 문자(文字)를 새기고 이화문(梨花文) 육각문(六角文) 격자문등(格子文等) 기하학적인 화

담이 되어 있고 그 담 외벽(外壁)에는 귀갑문(龜甲文)속에 나비 국화 모란 연화(蓮花)등의 꽃을 조형(造形)한 전화(甄花)가 배치되기도 하고 가로 70cm 세로 85cm 정도(크기가 약간씩 차이남)의 회벽 구간(區間)을 화담 중간에 배치하여 천도(天桃), 모단(牡丹), 국화(菊花), 죽(竹)등(等) 그림을 전으로 구워서 배치(配置)하였다.

이 화전(花甄)에는 태토 자체가 붉고 희고 검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졌으며 또 그 위에 채색을 입혔던 것이다. 이 화전(花甄)들은 꼭 조선후기(朝鮮後期)의 민화(民畵)와 같은 그림을 보여준다.

십장생(十長生)을 장식하는 것은 장수(長壽)를 기원(祈願)하는 것이며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나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도자기, 문방구, 벼개모, 자수, 회화 속에 많이 나타났던 것이며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설날 궁궐에 십장생도(十長生圖)를 걸어 놓은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사상(思想)의 근거는 신선사상(神仙思想)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자경전의 후원담은 모두 화담이었던 것이며 담의 협문은 전(甄)으로 축조한 아담한 흥에 문인데 동편에 남아 있다.

자경전(慈慶殿) 앞마당이나 뒷마당에는 큰나무를 심지 않고 이 담이 화원(花園)의 기능을 하였다. 다만 뒷마당에 조경(造景)식물(植物)이 배치되었다면 모란, 자약, 란(蘭), 앵두 정도의 키가 작고 화려한 화목류(花木類)가 몇 포기 심어졌을 것이다. 지금 자경전(慈慶殿) 앞마당 축대밑에 흰 백일홍등 한무리 화목(花木)이 서있는데 이는 원래 없었던 것이며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1920경(頃)의 자경전(慈慶殿) 사진(寫眞)에도 이곳에 한포기 나무도 없다. 원래 전(殿)의 앞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았던 것이다.

이곳은 담이 하나의 조경공간(造景空間)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다.

一 般 樹 木				庭 園 樹			花 木 類								
樹	種	株 數	數	種	株 數	樹	種	株 數	株 數						
소	나	무	108	피	양	목	461	무	궁	화	151				
전	나	무	271	향	나	부	245	자	무	나	2				
쉬	나	무	52	우	박	나	무	14	개	나	디	1,115			
은	행	나	무	37	옥	향	나	무	12	대	명	홍	236		
말	재	나	무	75	죽	백	나	무	136	옥	백	화	6		
갈	참	나	무	53	수	목	54	라	이	박	134				
다	름	나	무	3	홍	단	풍	10	살	구	나	무	59		
대	추	나	무	22	가	이	쓰	가	89	참	백	나	무	9	
비	드	나	무	51	청	단	풍	151	빛	백	나	무	105		
말	오	줄	나	무	2	눈	향	나	무	12	사	과	나	무	1
방	무	스	송	19	사	철	나	무	96	백	화	156			
최	화	나	무	25	관	백	나	무	1	수	양	백	죽	103	
수	업	나	무	6	다	백	송	3	1	철	나	죽	467		
산	사	나	무	4	백	오	동	3	3	명	꽃	나	무	8	
황	견	피	나	무	1	실	편	백	4	장	미(모포장포함)	503			
가	대	나	무	1	은	단	풍	7	7	모	단	75			
느	름	나	무	8	향	죽	백	1	1	홍	도	64			
계	오	동	나	무	10	비	자	나	무	2	리	당	화	25	
니	기	나	송	17	편	백	1	98	2	진	달	백	58		
갓	나	무	223							산	빛	나	무	143	

一 般 樹 木				庭 園 樹		花 木 類			
樹 種	株 數	數	種	株 數	樹 種	株 數	種	株 數	
봉 나 무	11				명 무 나 무	16			
박 달 나 무	1				복 송 아 나 무	1			
프 다 타 나 스	17				조 랑 나 무	6			
아 카 시 아	55				적 천 국	23			
느 리 나 무	59				목 벽 일 흥	4			
물 프 레 나 무	2				동 수 벽 예	6			
귀 봉 나 무	11				산 수 나 무	30			
보 의 나 무	3				동 나 무	51			
오 리 나 무	7				물 도 화	1			
갈 나 무	5				개 동 벽 나 무	2			
가 문 비 나 무	7				마 가 무	9			
웃 나 무	4								
반 나 무	32								
평 나 무	3								
꽃 일 나 무	3								
모 과 나 무	1								
견 벽 나 무	2								
네 군 도 단 중	4								
화 살 꽃 일 나 무	4								
시 나 무	18								
미 무 나 무	2								
물 랑 나 무	4								
악 리 나 무	2								
가 죽 나 무	27								
업 나 무	4								
오 동 나 무	2								
송 중 나 무	2								
참 나 무	53								
은 수 나 사 무	3								
피 나 무	1								

라. 교태전(交泰殿) 후원(後苑)인 아미산(峨嵋山)

교태전(交泰殿)은 경복궁(景福宮)의 동서남북(東西南北)의 중앙(中央)에 위치했던 왕(王)과 왕비(王妃)의 침전(寢殿)이다.

교태전(交泰殿) 앞에는 왕(王)의 침전(寢殿)인 강녕전(康寧殿)이 있었고 그 뒤에 깊숙이 왕비(王妃)의 침전(寢殿)인 교태전(交泰殿)이 있었다. 이 교태전(交泰殿)은 1865년(年) 재건(再建)되었던 것이며 1917년(年)에 창덕궁(昌德宮) 내전(內殿)이 화재로 소실되어 경복궁의 내전(內殿)들을 헐어다가 창덕궁(昌德宮)에 이진(移建)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교태전(交泰殿) 후원이던 아미산(峨嵋山)만 남아 있다. 이 아미산(峨嵋山)은 궁궐의 가장 깊은 내전(內殿)의 후원(後苑)이었던 것이다.

아미산(峨嵋山)이란 원래 중국(中國) 산둥성(山東省) 박산현(博山縣)에 있는 명산(名山)으로 이태백(李太白)의 시(詩)나 중국(中國)의 명산도(名山圖)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대상의 산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교태전(交泰殿) 후원(後苑)의 낮은 동산에 이름붙인 것이다.

언덕같은 작은 동산에다 폭(幅)30cm 정도의 장대석(長臺石)으로 사단(四段)의 석단(石段)이 층층이 쌓고 단(段)에는 또한 주황색(朱黃色) 전(甄)으로 축조(築造)한 아름다운 연돌(煙埃)4개(個)가 서 있다. 이는 교태전(交泰殿)의 연돌(煙埃)이다.

□석(□石)은 신라(新羅)의 동궁원유(東宮苑圍)인 안압지(雁鴨池)처럼 □석자체(□石自體)만을 치석(置石)하지 않고 조선시대(朝鮮時代) 오면 □석대(□石臺)인 석분(石盆)위

에 배치되는 것이 또한 특색이다. 아미산의 □석분(□石盆)은 팔각(八角), 사각(四角)등(等) 4개(個)가 있고 석분(石盆)에는 화문(花紋)이 조각되어 있기도 하다.

석지(石池)용 거북좌대위에 연화지(蓮花池)를 얹은 것이 있으며 또한 정방형(正方形)의 석지(石池) 두 개는 전체 높이는 110cm이며 「함월지(涵月池)」 「락하담(落霞潭)」의 각자(刻字)가 있다. 크기는 두 개 모두 세로 668cm의 정방형(正方形)인데 지석(池石) 깊이가 11.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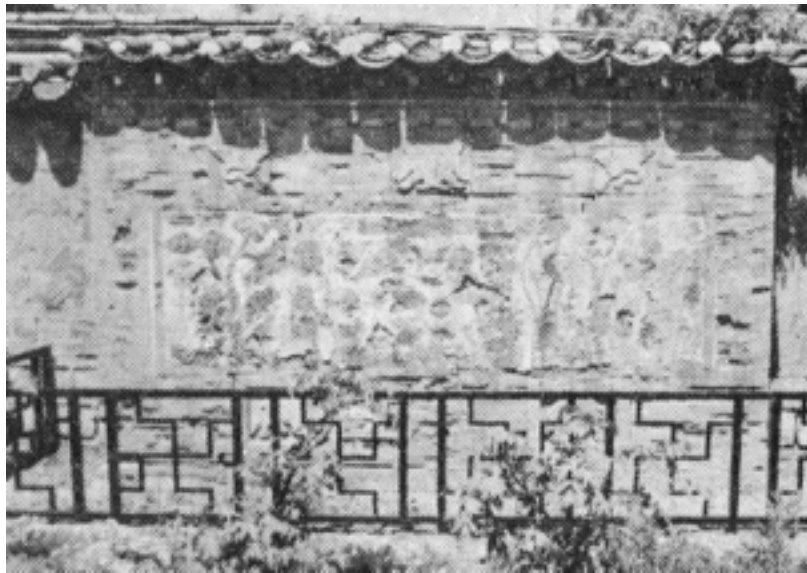
연돌(煙埃)은 지붕을 제외한 높이가 260cm인 육각(六角)인데 지붕위에는 4개(個)씩의 연가(煙家)가 얹혀 있다. 연돌의 한 벽면은 폭(幅)이 88cm 높이 260cm로서 제일 상단 벽마다 당초문(唐草文)을 배치하고 그 밑을 가로 27cm 세로 18cm 정도의 용(龍), 학(鶴), 박쥐, 공작 문전(紋甄)을 박았는데 정남(正南)에는 언제나 용문전(龍文甄)이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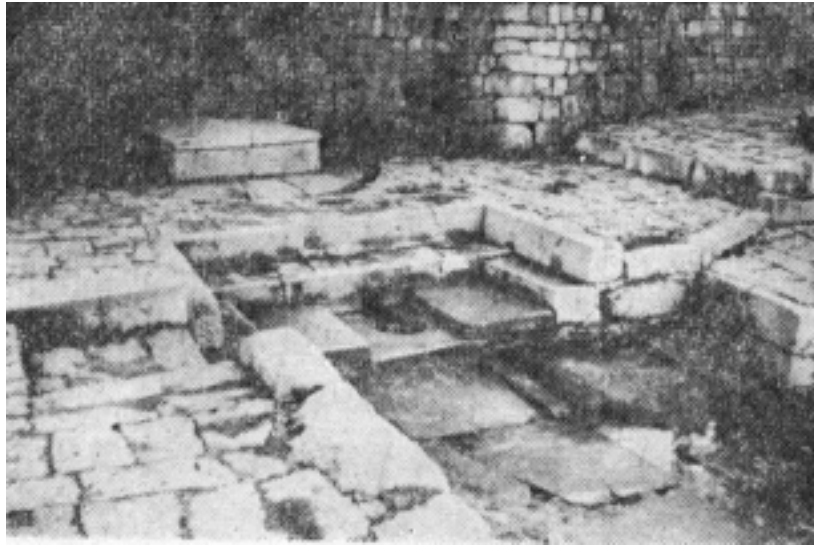
그 하부(下部)의 연돌 벽면(壁面)에 대개 가로 50cm 세로 70cm 구간(區間)에 송(松), 죽(竹), 매(梅), 모란(牡丹), 송(松)철쭉, 앵두, 이화(梨花)가 배치되었고 동산(東山) 위에는 말채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등 큰 교목(喬木)이 서 있었다.

이 교태전(交泰殿)의 담은 전(甄)으로 축조한 운치있는 화담과 전담이 둘러 있었고 담에는 조화로운 홍예문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1918년경(年頃) 사진(寫眞)에 보면 아미산(峨嵋山) 하단(下段)에는 모란이 가득히 배식되어 있고 중간담에는 반송등이 운치있게 서있으며 교태전의 조화로운 화(花)담이 둘러쳐 있다.

이 공간에는 인공적인 정원수가 들어가서는 안되고 저 강희안(姜希顔)의 화목구등품(花木九等品)에 나오는 것 같은 수종이 자연스럽게 심어져야 한다.





## 結 語

경복궁(景福宮)은 조선왕조(朝鮮王朝) 정궁(正宮)으로서 그 원유(苑圃)의 제도(制度)역시 제왕(帝王)의 궁내(宮內) 조원배치(造苑配置)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청사(淸) 중앙청건물(中央廳建物)를 건립(建立)하면서 전원(前苑)이 모두 파괴당하고 또한 1917년(年)에 창덕궁(昌德宮)화재로 인한 복구에 경복궁(景福宮)의 중요내전건물(重要內殿建物)들이 이진(移建)되고 이에 따라 조원공간(造苑空間)의 파괴도 아울러 진행되었으며 1915년(年) 일제(日帝) 오주년(五週年) 물산공진회(物産共進會)를 개최할 때 미술관(美術館)(현(現) 학술원(學術院))을 건춘문(建春門) 내원(內苑)에 건립하면서 유현한 조원공간(造苑空間)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1940년경(年頃)에 건청궁(乾淸宮) 터에 현(現) 민속박물관(民俗博物館)을 건립하면서 후원(後苑)과 전원 일부(前苑 一部)가 변형되고, 6.25를 거치면서 많은 건물지와 원유(苑圃)가 파괴되었다.

그후산업박람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하고 그 터를 복구하면서 안목없이 조경(造景)을 하여 인공적(人工的)인 정원수가 가득 들어와서 자연(自然)스러운 경관이 크게 변형되었고 그후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이 궁내(宮內)에 건립되었다. 이러한 현황(現況)에서 경복궁 조원(造苑)의 개선점(改善點)을 열거해 보면,

첫째, 전지(剪枝)하는 향나무 등성의 정원수(庭園樹)는 경복궁본래(景福宮本來)의 자연미(自然美)를 크게 해치고 있다.

둘째, 공간구성에 있어서 포푸라, 향나무 등속은 조화있게 개선되었으면 한다.

셋째, 탑(塔)이나 석조물(石造物)을 낮게 보이거나 가리거나 풍화(風化)를 가속시키는 수목은 다른 곳으로 이식(移植)이 필요(必要)하다.

넷째, 원형(原形)이 남아 있는 원유(苑圃)의 공간에서는 그 원형(原形)을 해치는 시설물이나 조경수(造景樹)를 제거했으면 좋겠다.

다섯째, 궁원(宮苑)의 본 모습을 복구할 수 있는 나무를 계속 심고 중요한 건물지(建物址)는 알 수 있게 보존(保存)되어야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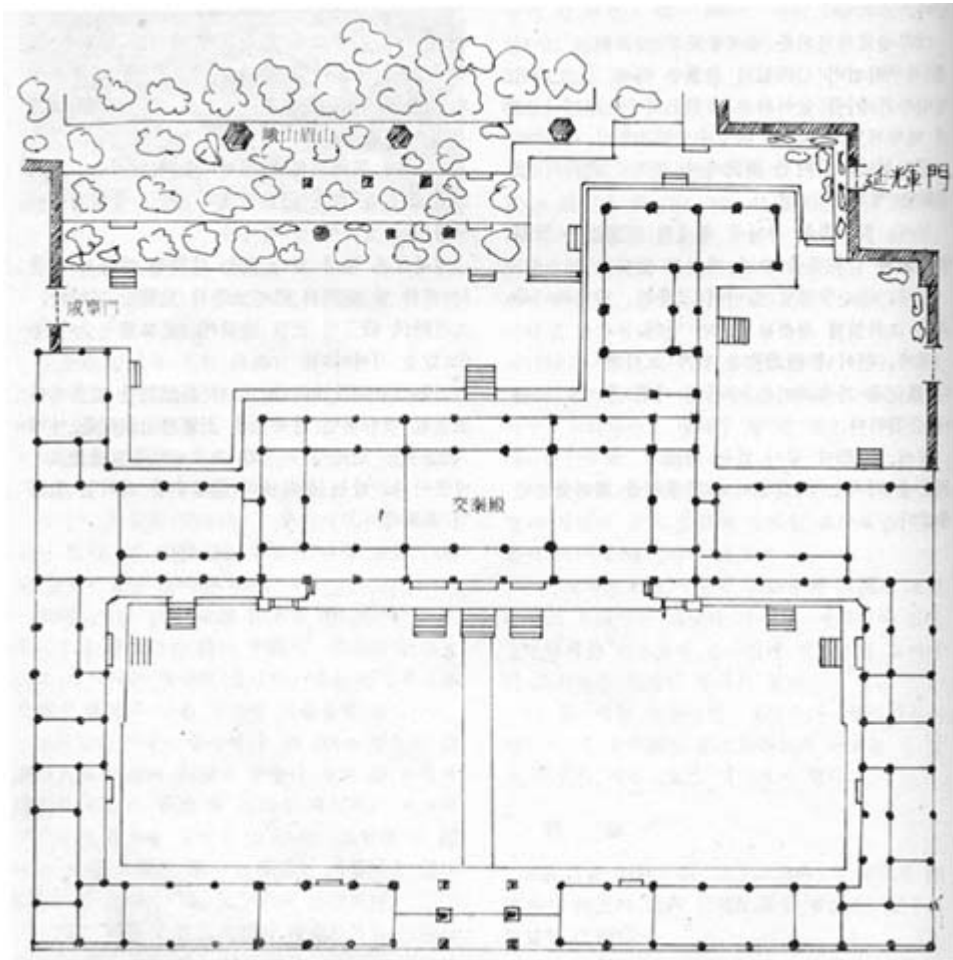
여섯째, 전문적(專門的)인 안목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복궁 사무소에 조경직(造景職)의 배치가 필요했다.

일곱째, 십장생(十長生) 화장(花牆)같은 조경의 중요 구조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조화스러운 덧집같은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여덟째, 경복궁(景福宮)의 원유(苑圃)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專門家)의 연구(研究)를 거친 조경관리(造景管理)의 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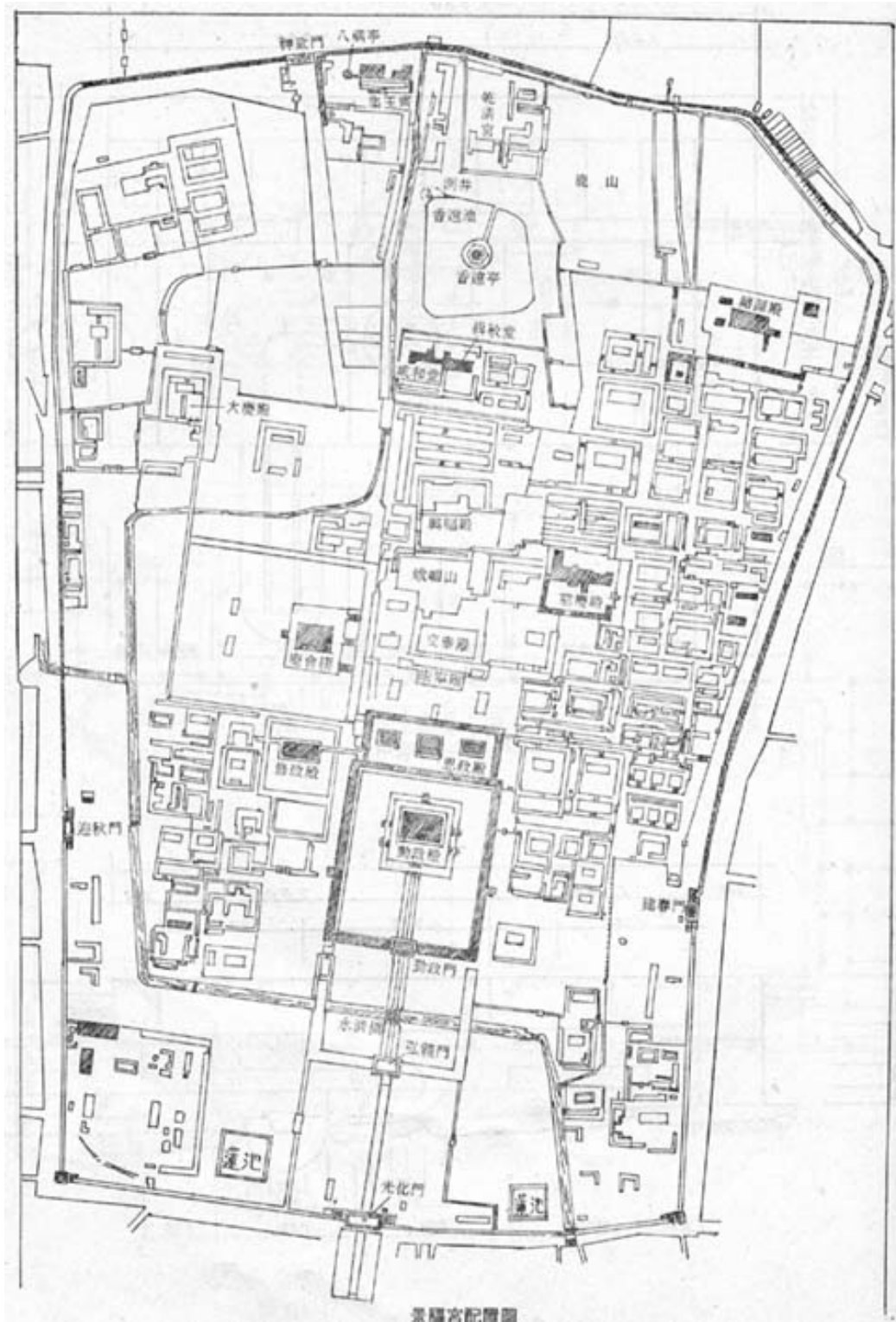
경복궁은 현재 남아 있는 건물(建物)뿐 아니고 건물의 배치 및 원유(苑圃)의 공간보존이 중요(重要)한 것이며, 조선시대(時代) 제왕(帝王)의 정궁(正宮) 조경(造景)의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는 사적이다.

이는 창덕궁(昌德宮) 후원(後苑)(비원(秘苑))이 자연적(自然的)인 지세(地勢)따라 조성된 것이라면 경복궁은 정궁(正宮)의 제도(制度)를 따라 인공적(人工的)인 조원(造苑)의 과감한 조성방법을 배풀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나라 조원사(造苑史)를 밝히는 중요(重要)한 유적이다.



<경복궁(景福宮) 교태전(交泰殿)-곽평면도(郭平面圖)>





경복궁배치도(景福宮配置圖)